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키움증권

미 증시, 9월 FOMC 이후 금리 하락, 인텔 화재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7일(목) 미국 증시는 9월 FOMC 이후 연준 정책 불확실성 완화 속 미 10년물 금리 5.0%대 하회, 사우디의 송유관 피해 복구 작업에 따른 유가 약세 등 우호적인 매크로 여건이 조성된 가운데, 인텔(+7.7%) CEO의 27년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 발언에 따른 마이크론(+5.5%), 엔비디아(+2.5%) 등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1.1%, 나스닥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1%).

현재 시장은 고금리 국면에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 작년까지만 해도 미 10년물 금리 4.5%가 임계선으로 인식됐으며, 이 레벨을 상회 시 주가 추세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음. 그러나 이후 미 10년물 금리가 4.5% 넘었을 때는 임계선이 4.8%로, 4.8%를 넘었을 때는 5.0%로 임계선이 계속 높아졌으며, 이번주 여러 차례 5.0%선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주식이 버텼다는 점이 특징적인 현상.

이는 주식시장이 4.5%, 4.8% 임계선 인식 당시에 비해 이익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우위에 있다 보니, 고금리 적응력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축적해 놓고 있음을 시사. 결국 앞으로 금리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승 속도가 될 예정. 9월 11일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확산되는 트리거가 “금리의 절대 레벨(응답률 14%)”이 아닌 “금리 상승 속도(응답률 64%)”가 1순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일단 9월 FOMC 이후 미 10년물 금리가 4.93%대까지 내려온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중동 정세, 연준 정책, 기간프리미엄 변화 등에 따라 재차 5.0%대 재진입 가능성은 열고 가는 것이 타당.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이, 10년물 금리가 특정 레벨(5.0%, 혹은 5.2%, 5.4% 등)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해당 레벨 도달에 조건반사적인 매도 반응보다는, 금리 상승 속도와 이익 컨센서스 변화 여부를 우선순위로 체크해가면서 포지션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매파적이었던 9월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장 초반부터 반도체, 방산, 금융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들어 외국인 순매도 여파로 상승분을 반납(코스피 -0.04%, 코스닥 +0.8%).

금일에는 9월 FOMC 이후 미 10년물 금리 안정 속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미국 증시 반등 성공 소식, 코스피 야간 선물 2.9%대 강세 속 장중 BOJ 회의(금리인상 유력, 시장에서는 기반영)를 소화해가면서 강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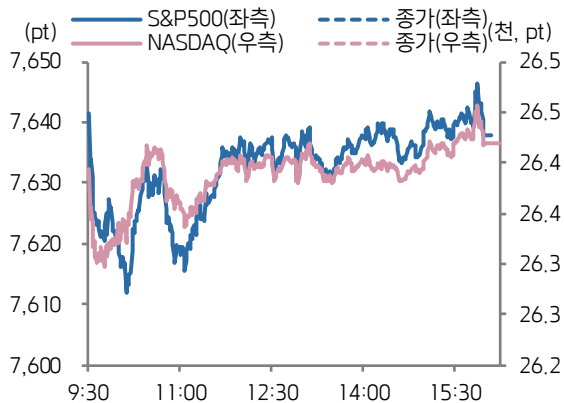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변화도 관련 인트. 최근 이들은 전일 코스피에서 2.2조원을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증시에 수급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 다만, 외국인 연속 순매도는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 메모리 피크아웃, AI 속도조절 등 펀더멘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이보다는 9월 FOMC, 장기물 금리 상승, 중동 사태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리스크 관리가 순매도를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 그러나 9월 FOMC를 기점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으며, 미국 10년물 금리 5.0% 돌파 등 고금리 환경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 따른 3분기 실적시즌 우려가 상존하지만, 최근 달러/원 환율이 9월 9일 1,344원을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380원선까지 올라온 상황.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미 금리차 축소 지연 가능성,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중기적인 달러 수요 등을 고려 시, 달러/원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재개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는 반도체, 조선, 방산,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업종의 이익 추정치 하향 우려에 따른 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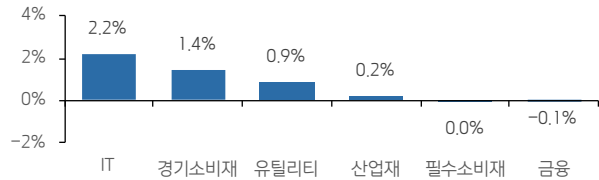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연속 순매도를 추세 이탈의 신호로 받아들임에 따라, 반등 시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후순위로 두는 것이 적절. 이보다는 매크로 불안 정점 통과 이후 외국인 순매수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반도체 등 주력 업종 중심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할 필요. 혹은 차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인 수급 공백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를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 확대에 나서는 전략도 유효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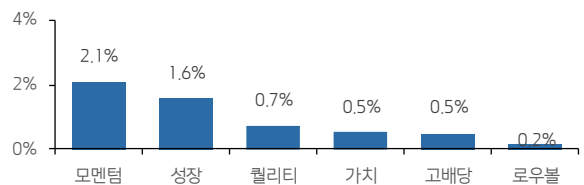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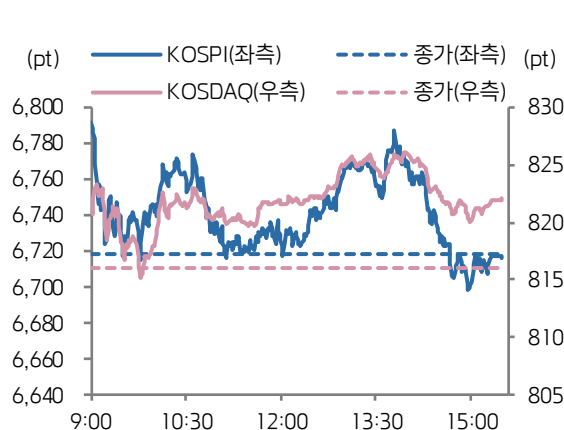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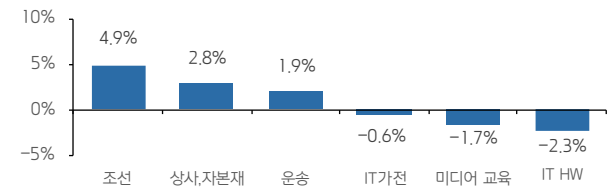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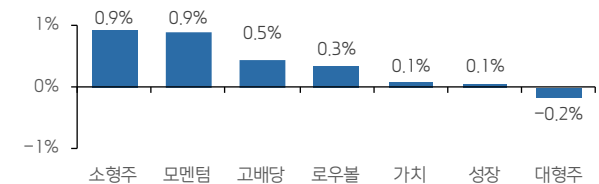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37.00	+1.38%	+23.96%	GM	86.62	+2.76%	+6.52%
마이크로소프트	497.75	+1.52%	+2.92%	일라이릴리	1,152.44	+1.28%	+7.24%
알파벳	347.33	+1.3%	+10.97%	월마트	106.79	-0.66%	-4.15%
메타	682.31	+1.34%	+3.37%	JP모건	349.31	+0.11%	+8.41%
아마존	251.19	+2.13%	+8.83%	엑손모빌	163.27	-0.03%	+35.67%
테슬라	366.20	+2.27%	-18.57%	세브론	211.57	+0.01%	+38.82%
엔비디아	219.34	+2.54%	+17.61%	제너럴일렉트릭	106.79	-0.7%	-4.1%
브로드컴	347.30	+2.29%	+0.35%	캐터필러	798.57	+2.02%	+39.4%
AMD	545.09	+6.36%	+154.52%	보잉	197.00	-2.46%	-9.27%
마이크론	977.50	+5.5%	+242.49%	넥스트에라	81.28	+1.1%	+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715.41	-0.04%	+59.35%	USD/KRW	1,380.10	+0.29%	-4.13%
코스피200	1,058.27	-0.17%	+74.64%	달러 지수	100.22	-0.03%	+1.93%
코스닥	822.18	+0.76%	-11.16%	EUR/USD	1.15	+0.1%	-2.3%
코스닥150	1,392.99	+0.4%	-9.97%	USD/CNH	6.70	-0.13%	-3.89%
S&P500	7,637.76	+1.14%	+11.57%	USD/JPY	155.97	-0.19%	-0.47%
NASDAQ	26,418.30	+1.69%	+13.6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1,778.04	+0.61%	+7.73%	국고채 3년	4.045	+0.5bp	+109.4bp
VIX	15.44	-12.82%	+3.28%	국고채 10년	4.491	-4.6bp	+110.6bp
러셀2000	2,874.63	+0.55%	+15.82%	미국 국채 2년	4.664	-7.2bp	+119.1bp
필라. 반도체	11,599.49	+3.14%	+63.76%	미국 국채 10년	4.930	-9.2bp	+76.3bp
다우 운송	20,184.06	+0.54%	+16.29%	미국 국채 30년	5.284	-7.7bp	+44bp
상해종합	3,875.60	-0.41%	-2.35%	독일 국채 10년	3.477	-3bp	+62.2bp
항생 H	8,175.36	-0.38%	-8.28%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4,314.59	-0.03%	-12.8%	WTI	101.91	-0.51%	+78.9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4.82	-0.95%	+72.26%
Eurostoxx50	6,322.90	+0.9%	+9.18%	금	4,399.70	+0.28%	-2.17%
MSCI 전세계 지수	1,137.39	+0.84%	+12.1%	은	65.47	+1.84%	-7.27%
MSCI DM 지수	4,922.10	+0.94%	+11.1%	구리	658.65	+2.41%	+15.92%
MSCI EM 지수	1,687.94	+0.08%	+20.19%	BDI	3,327.00	-0.98%	+77.25%
MSCI 한국 ETF	182.39	+3.9%	+87.61%	옥수수	530.50	-0.7%	+15.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27.00	-0.51%	+28.73%
비트코인	76,499.51	+0.52%	-12.72%	대두	1,319.75	-0.06%	+23.98%
이더리움	2,451.56	+1.77%	-17.67%	커피	276.50	-1.79%	-1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